

‘입국장 면세점’ 착잔속 태풍 vs 유통가 다크호스

인천공항 1터미널 ‘에스엠면세점’ 2터미널에 ‘엔타스튜디오프리’ 입점 다양한 중소기업 유치로 ‘상생’ 내년 매출규모 730억원 기대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장에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세청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를 발표한 지난달 29일 공개된 인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예정지. /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 가운데, 사업자로 선정된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튜디오프리가 우려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의 본래 취지인 국민편의 증진을 확보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을지 현상황을 짚어봤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공항 1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에스엠면세점을, 2터미널 사업자로 엔타스튜디오프리를 각각 선정했다. 면적은 1터미널이 동편과 서편에 총 380㎡, 2터미널은 중앙에 326㎡다.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점은 롯데, 신세계, 신라 빅3가 40% 이상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엔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중소·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입찰 형태로 진행된 것.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하게 된 배경에는 여행자들의 편의(여행기간동안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건을 번거롭게 휴대할 필요없이 귀국하면서 구매할 수 있게됨)를 증진시킨다는 데 있다. 또 해외에서의 소비를 국내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물품을 제외한 향수와 화장품, 주류로 한정된다. 구매 한도 역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600달러다.

판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출국장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할 전망이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에 해외 명품 브랜드가 들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기업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겠지만,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

는 항공사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입국장 면세점이 2020년 기준 730억원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이 18조 9602억원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매출 규모다.

전문가는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정해져있고, 판매 품목도 제한적이어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라며 “입국장 면세점이 수익을 거두려면 여행객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시선

을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짜야할 것”이라고 초기 브랜드화를 강조했다.

에스엠면세점 측은 “작은 면적에 맞춰 기존과 차별화해 상품들을 디스플레이할 것이며, 신규 수익 창출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튜디오프리 모두 국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을 다양하게 유치해 중소, 중견기업과 상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술 같은 무거운 면세품을 출국 때 사지 않고 여행 후 귀국길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공항 면세점은 수많은 여행객이 오가는 길목에 있어 유통 채널에게는 입지 자체가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한다. 게다가 저렴한 임대료도 장점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시작으로 김포·대구 등 여타 지역으로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한항공, 봄맞이 ‘화분나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앞에서 열린 식목일 맞이 화분나눔 행사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어린이들에게 화분을 증정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도 올 성장률·수출 전망 낮췄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 경제전망’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악재 성장률 2.5%, 마이너스 수출 예상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내려 잡았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했다. 특히 수출 금액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예정처 ‘2019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에서 밝힌 올해 성장률 예상치(2.7%) 보다 0.2%포인트 낮췄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실제 성장률(2.7%)보다도 0.2%포인트 낮다.

예정처는 성장률 전망을 정부(2.6~2.7%),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보다도 낮게 평가했다. 민간 연구소인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과 같은 수준이다.

예정처의 이 같은 전망은 세계 경기 성장세가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외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했다는 게 예산처 분석이다. 예산처는 특히 유로 지역 경기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분쟁 때문에 내수, 수출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세계무역센터(WTO)는 현지시각 2일 올해 전 세계 무역 성장률이 2.6%로 지난해 실제 성장률 3.0%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 역

2019년 국내 경제전망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실질 GDP 성장률	2.7%	2.5%	명목 GDP 성장률	3.0%	3.5%
경상수지 흑자	\$764	\$690	소비자 물가	1.5%	1.3%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시 성장률 둔화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관세 장벽과 보복 관세, 경제적 불확실성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로버트 쿠프만 WTO 수석 경제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올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가면 더 큰 충격과 함께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며 “미중 교역은 전 세계 교역에서 8%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세가 미중 무역 갈등 충격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평가다.

시장 환경을 고려해 예정처는 올해 상품 수출(통관 기준)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전망 당시 2.4% 늘어날 것이라 내다봤지만,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수정했다. 국제금융센터도 3월 수출이 전년 대비 8.2% 감소하면서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특히 WTO의 제언대로 반도체와 자동차 품목은 전년 대비 각각 16.6%, 1.2% 감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물량을 따지는 실질 총수출 증가율 전망치는 3.2%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가격이 예상보다 하락 폭이 크고 수출 물량도 1

월 한때 마이너스로 내려가기도 하는 등 부진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내수 부문별 성장률도 줄줄이 낮춰 잡았다. 민간소비는 2.7%에서 2.6%로, 설비투자는 2.3%에서 1.9%로 떨어뜨렸고, 건설투자는 -2.4%에서 -3.5%로 마이너스 폭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이 내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는 지난해 1.2%포인트에서 올해에는 0.4%포인트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1.6%포인트에서 2.1%포인트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에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3.5%로 지난해(3.0%)보다 높겠지만,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인 4.5%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예정처 분석이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은 20여만 명에서 12만명으로 눈높이를 낮췄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효과가 나겠지만 내수 부진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약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1.8%에서 1.3%로 낮춰 잡았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외환보유액 4052억 弗… 5.8억 弗 증가

한은, 유가증권 16% ↓ 예치금 21% ↑

지난 3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외화자산 운용수익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9년 3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외환보유액은 4052억5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5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등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산별로 보면 유가증권은 3775억달러로 전월 대비 16.1%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인 SDR도 33억6000만달러로 0.2% 줄었다.

반면 예치금은 172억7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20.6% 증가했다. 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권인 IMF포지션

(23억2000만달러)은 1.5% 늘었고 금(47억9000만달러)은 전월과 같았다.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를 대상으로 산정한 달러화지수(DXY)는 3월 말 기준 97.20으로 전월 보다 1.1% 상승했다. 달러화지수 상승은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유로화(1.122)는 1.3%, 파운드화(1.3056)는 2.0%, 호주달러화(0.707)는 1.0% 절하됐다. 반면 엔화(110.6)는 0.3% 절상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를 유지했다. 1위는 중국(3조902억달러), 2위는 일본(1조 2818억달러), 3위는 스위스(7912억달러) 순이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4846억달러), 러시아(4826억달러), 대만(4639억달러), 홍콩(4344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김희주 기자 hj89@